

# 국가철도공단 자카르타 도시철도공사와 철도사업 협력 협약

## 발주처·파트너십 구축...자카르타 MRT 4단계 개발 본격화



1 국가철도공단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철도공사와 '자카르타 도시철도(MRT) 4단계 개발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 국가철도공단 사옥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5월 3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철도공사와 자카르타 도시철도(MRT) 4단계 사업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공단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체결했다. 자카르타 도시철도공사와 함께 자카르타 도시철도 4단계 사업 계획과 건설, 운영, 자금조달,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자카르타 도시철도 4단계 사업은 자카르타 팻마와티에서 타만 미니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2km 구간(역사 10곳·차량기지 1곳)으로 건설과 차량 조달 등 총사업비가 1조5천억 원에 달한다.

공단은 자카르타 주 정부 등 발주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카르타 도시철도 4단계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고, 한국 철도의 건설 기술과 시스템을 홍보하는 등 사업 구체화를 위한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선다.

김한영 이사장은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민관합작 투자방식(PPP)의 철도 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다”며 “이번 협약

을 통해 인프라 기획 단계부터 발주처와 협력을 강화하면 자카르타 도시철도를 비롯한 현지 민관투자 방식의 사업 수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공단은 지난 2019년 자카르타 경전철(LRT) 1단계 건설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자카르타 LRT 2단계 구간 타당성 조사와 LRT 운영 역량 강화 용역을 수행 중이다. ▼

